

#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 연구

##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Types of Mothers and Communication Types of Children's

김용숙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Yong-Sook Kim(yskim82@joongbu.ac.kr)

### 요약

본 연구는 보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인애착 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 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교육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1.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들이다. 이들에게 성인애착측정도구와 유아 의사소통유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는 의존성과 부정적 의사소통유형, 불안성과 긍정적 의사소통유형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을 토대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중 불안성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유아 | 보육기관 | 의사소통능력 | 성인애착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types and communication types of child who attend childhood-care center and their mothers, offer general information of parent education with the importance of language within family as the basic material and provide data and material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of infants who attend childhood-care center. Based on these goals, study subjects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types of mothers and communication types of child were established as follows:

1.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types of mothers and communication types of child ?
2. How do attachment types of mothers affect on communication skills of child?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child aged 3 - 5 years old who attend children's house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their mothers. Measurement tool of adult attachment and tool of communication types of child were used to them for analysi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types of adult attachment and communication types of child. On the contrary, there were passive correlations between dependency and negative communication types and between insecurity and positive communication types. Based on the correlation analysis, insecurity among types of mothers' adult attachment was a major variable that can predict communication skills of children's i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keyword : | Childhood-care Center | Communication Skills | Adult Attachment |

##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부모가 되는데 오늘날 어머니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양육 받아 왔던 방식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하거나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제한점으로 인해 자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심리적 편견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머니의 애착표상이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양육의 형태를 가진 경우 유아는 자신의 신호를 통합하고 참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서 자녀가 민감하고 일관된 태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14]. 따라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인도되는 양육의 질은 유아의 생활에 결정적 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기본적인 정서적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유아기 성격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9],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다[3].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애착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관련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성인애착이론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 1. 어머니의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성인애착이라 정의할 수 있다[11]. 그동안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경험은 아동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 까지 계속된다는 Bowlby의 이론은 영아, 아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애착관련 연구를 성인까지 확대시켰으며,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의해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이후의 부모로서의 양육 행동 사이의 연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Bartholomew는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 개념을

체계화하여 성인애착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23].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을 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애착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들을 살펴 보면,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고[19],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부모와 맺은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녀에게 적합한 한계를 설정하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1].

또한 거부형 애착의 어머니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요구나 필요에 무관심하고 부모-자녀의 관계에서도 무반응성을 학습시키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신의진, 이경숙, 박경숙[21]의 연구에서도 애착장애 어머니들은 유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로 비 개입된 표상과 왜곡된 표상을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Ainsworth와 Bell(1970)은 안전기지 개념을 주장하면서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지 못한 아이는 발달이 위축되거나 불안하고 공격적이 되어 결국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고 장애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기 어머니의 역할은 발달에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insworth(1979)와 Sroufe(1979)에 따르면 유아기 안정애착을 느끼게 하는 요인 즉 어머니의 민감성, 유관된 반응성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개념(그들은 신뢰할만하고 의지할만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를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개념(나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다)도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유아의 생활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 [24],[25]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성인애착에 대한 관련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맺는 애착관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적절한 반응을 가질 때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애착대상에 대한 안정적인 실행모

델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사고하는 능력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 2. 유아 의사소통

유아기에 어머니와 맺게 되는 상호작용 경험으로 형성된 애착의 질은 인간의 행동이나 대인관계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소성(plasticity)이 큰 유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보살핌과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 지능, 정서, 의사소통 등 발달의 관련 영역이 상당부분 결정될 수 있다[7].

유아기 특징 중 하나는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가장 중요한 상징적 표현의 수단인 언어이다. 유아는 상징적인 기능을 획득하게 되면 사물을 응시하는 능력과 함께 단어의 획득도 빨라지고 의사소통 능력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의 특성 즉, 자기중심성 사고 때문에 사회화 된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유아기는 언어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유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부모가 하는 말이 유아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말을 사용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가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으로 일관하면 언어표현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출생에서부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대인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영유아의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하는가와 타인의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의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직업유형, 이웃, 사회적 지지 등은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데 Bradley, Corwyn,

Mcadoo와 Coll(2001)은 가족을 대상으로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의 자극을 조사한 연구에서 경제적 능력이 약한 부모가 자녀양육에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에 혼자 있게 하거나 집안일을 시키고 특정 권한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모의 양육방법은 유아에게 전달되어 또래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응을 유발한다. 부모의 수용이나 애착, 민주적인 양육방식은 유아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수용이나 애착이 성립되지 않은 유아들에게 발달을 저해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상호 교류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명희(1989)는 의사소통이란 인간의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Yerby와 Buerkel-Rothfuss(1982)는 의사소통 패턴이 일곱 개의 특성을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체계 내의 관계에 특유한 것,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 상호관계적인 것, 긴급한 것, 생태계내의 힘에 의하여 변화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하였는데 의사소통패턴이 단지 관계 내에서 의미를 반영하기보다는 의미를 창출하는가를 잘 나타낸다. 이처럼 의사소통능력이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인 명령, 훈계, 설교, 비판 형태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형태는 자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개방적이거나 감정이입, 지지, 긍정, 동질성의 자세를 갖고 적극적인 경청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2].

또한 이인숙(1997)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며 이규원(1987), 김영애(1990), 고기준(1991)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현미(1996)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김수연(1995)은 반응성 애착장애아, 전반적 발달장애아, 언어장애아의 놀이수준 및 어머니와 상호작용 능력에 관한 연구[16], 애착과 의사소통 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4], 학령기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능력과 마음이론에 대한 비교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3세, 4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를 통해 유아들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는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기초 자료로 삼아 부모교육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1.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세(45명), 만 4세(53명), 만 5세(62명) 유아 160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이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연구자 주위의 보육기관 담당자들의 동의를 얻어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에 의해 연구되었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아들이 다니는 8개의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어머니들에게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86부가 수거되었고,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60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변인의 경향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의 배경변인

어머니 변인		
변인	구분	N(%)
직업 유무	유무	90(56.3) 70(43.8)
	학력	고졸 55(34.4) 전문대졸 48(30.0) 대졸 47(29.4) 대학원졸 10(6.3)
연령	25-29세	39(24.4)
	30-34세	62(38.8)
	35세 이상	59(36.9)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대상이 된 어머니들의 직업 유, 무를 살펴보면, 직업을 가진 어머니 90명(56.3%), 직업을 가지지 않은 어머니는 70명(43.8%)로 구분지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55명(34.4%), 전문대학 졸업이 48명(30.0%), 대학교 졸업이 47명(29.4%)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이 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조사결과 알 수 있었다.

표 2. 유아의 배경변인

유아 변인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유아 성별	남	86(53.8)	유아 연령	만 3세	45(28.1)
	여	74(46.3)		만 4세	53(61.3)
				만 5세	62(100.0)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대상자인 유아들의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만 3세 45명(28.1%), 만 4세 53명(61.3%), 만 5세 62명(100.0%)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86명(53.8%), 여아 74명(46.3%)으로 조사되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2.1 어머니의 애착 측정도구

어머니에 대한 측정도구는 성인애착질문지 (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조사도구는 Hazan과 Shaver(1987)이 사용했던 기술문을 토대로 Collins와 Read(1987) 제작한 도구를 김정민과 박광배(1991)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존성, 불안성 친밀성 내용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로 '친밀성'과 타인에 대한 의존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성'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을 것이라는 불안의 정도로 '불안성'으로 구성되었다. 친밀감과 의존성의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 유형에 속하고 불안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 유형에서 거리가 멀어진다. 세 가지 하위척도는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나타낸다.

## 2.2 유아 의사소통 측정 도구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이정순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심성경과 김나림(1997)의 의사소통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개의 하위영역으로 긍정적 의사소통 10문항 부정적 의사소통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15문항이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중 하나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의사소통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 3. 연구 절차

### 3.1 예비조사

2009년 8월 19일에 검사자 훈련을 통하여 측정도구 문항 간 내용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예비조사는 보육기관(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4세, 5세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이 아닌 부모에게 질문지를 측정해 본 결과 예비조사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질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 3.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9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 동안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세, 4세, 5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율은 80%였고 불성실한 답변을 한 질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최종 160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질문지 배부방법은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통하여 배부되었으며,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질문지 수거 방법은 어머니가 작성 후 각 담임교사에 의해 수거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를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성인애착 유형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 간의 관계 분석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의존성과 부정적 의사소통유형( $r=.326, p<.05$ ), 불안성과 긍정적 의사소통유형( $r=.196, p<.05$ )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의존성과 긍정적 의사소통유형( $r=-.172, p<.01$ ), 친밀성과 부정적 의사소통유형( $r=-.251, p<.01$ ),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 간의 관계

유아 의사소통 유형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	전체
모애착유형			
의존성	-.172**	.326*	.021
불안성	.196*	.108	.248*
친밀성	.042	-.251**	-.102
전체	.090	-.222**	-.040

\*p<.05, \*\*p<.01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유아의 의사소통 유형을 어느 정도 예측해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4.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beta$	t	R <sup>2</sup>	adj.R <sup>2</sup>	F
유아 의사소통 유형	(상수)	34.904	4.759		7.335***	.075	.057	4.230*
	의존성	.091	.154	.046	.591			
	불안성	.539	.164	.255	3.295**			
	친밀성	-.190	.136	-.108	-1.404			
	전체	-.08	.11	-.05	-.71			

\*p<.05, \*\*p<.01, \*\*\*p<.001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체 변량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4.230, p<.05), 불안성( $\beta$ =.255)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을 예측하였다. 의존성은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 정적관계, 친밀성은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 부적 관계로 나타나는 하였으나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 중 불안성이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의 애착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를 상관 분석한 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는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의존성과 부정적 의사소통유형, 불안성과 긍정적 의사소통유형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성과 긍정적 의사소통유형, 친밀성과 부정적 의사소통유형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비하지만 성인애착유형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밝힌 이재원의 연구(2006)와 어머니의 성인애착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밝힌 박세라(2008)의 연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 중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시도할 수 있음으로 볼 수 있으며 불안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많이 시도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 중 의존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시도할 수 있음으로 볼 수 있으며 친밀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의사소통을 적게 시도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관련하여 의존성을 낮추고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부모의 애착유형을 파악하고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관련하여 불안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심리상태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고 알고자 하는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부모 자신의 불안하고 초조함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자녀를 보

호하고, 부모-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이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체 변량의 7.5%를 차지하여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을 예측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 중 불안성이 유아의 의사소통유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 자신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불안감이 유아와의 의사소통유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 자신이 대인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리되거나 격리됨을 느끼지 않고, 주변의 타인과 함께 결속되거나 융합되기를 바라는 애착유형을 가지고 원만한 의사소통관계를 맺고자 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존성은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 정적관계, 친밀성은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 부적 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안전애착유형의 부모는 의존감과 친밀감이 높고 낮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즉, 안정애착 유형의 어머니는 친밀함에 편안함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으며 버림을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음을 밝힌 선행연구[25]들의 결과도 본 연구 결과와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등이 반영된 것으로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은 추후 연구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요인으로 나타나는 결과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성이 있다.

어머니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애착유형만을 한정하여 의사소통유형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애착유형과 교사의 애착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에 대한 어머니 성인애착은 유아기를 넘어 그 이후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유아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발달상 문제들을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중재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 및 상

담자, 부모, 교육교사로 구성되어지는 협력팀에 의한 지속적인 공조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 문헌

- [1] 고기중, *모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2] 김경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3] 김관용, *부모발달과 부모역할*, 한국부모학, 1997.
- [4] 김수연, *반응성 애착장애아, 전반적 발달장애아, 언어장애아의 놀이수준 및 어머니와 상호작용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 [5] 김영애,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6] 김정민, 박광배, *연애 중인 커플의 사랑유형; 선택가설에 대한 검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1991.
- [7] 김종서, *한국 초기기독교의 선교와 교육활동*,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8] 김주영, *학령기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능력과 마음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7.
- [9] 문수경,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10] 박세라, *성인기 미혼남녀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부모와의 유대와 자아분화가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1] 신노라, *성인애착유형과 대인불안수준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2] 신의진, 이경숙, 박경숙, *반응성애착장애아의 어머니-아동 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8,

No.1, pp.22-33, 1997.

[13] 심성경, 김나림, 아버지-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Vol.7, No.2, pp.139-160, 1997.

[14] 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아동의 정신병리와 어머니의 성인애착표상 유형(AAI)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Vol.12, No.1, pp.103-115, 1999.

[15] 이규원, *학업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관련성 연구*,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6] 이영주, 애착과 의사소통능력 및 결혼관계 만족 ; 30-4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7

[17] 이인숙,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1997.

[18] 이재원,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대인불안의 관계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9] 이현미, *어머니의 부모애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0] 정명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21] 정혜승, *어머니 자신의 부모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22] M. Ainsworth,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ersonality*, 44, pp.709-716, 998.

[23]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1.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1969.

[24] K. Bartholomew, and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pp.226-244, 1991.

[25] J. A. Feeney and P. Noller,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pp.281-291, 1990.

[26] The making &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New York : Routledge, 1979.

[27]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1998.

[28] K. Grossmann,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sner in longitudinal perspective, 1991.

저자 소개

김 용 숙(Yong-Sook Kim)

정희원



- 1996년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 석사
- 2004년 : 한남대학교 교육학박사
- 1997년 3월 ~ 1999 12월 : 우석대학교 부설아동복지 연구소 연구원

- 1997년 3월 ~ 1999년 12월 : 우석대학교 우석유치원 · 우석어린이집 원장
  - 현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유아미디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교육과정